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여건 갈수록 '팍팍'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130개사 3분기 경영여조 조사 62.3% "악화"·81.5% "단가 부적정"·9.2% "사드 피해"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또 전체의 10%에 가까운 업체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중국에게 현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볼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130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3분기 광주·전남지역 대기업협력업체 경영여조 조사'결과 자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 '나쁘다'(매우 나쁨, 다소 나쁨)고 응답한 비율

이 81개사 62.3%로 전분기 54.6%보다 7.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최근 2년 내 가장 악화된 수치다.

자사의 경영상황이 나쁘다고 응답한 업체에 대해 나빠진 원인을 조사한 결과 '국내수요 감소'(51.0%), '가격경쟁력 약화'(18.6%), '자금조달 곤란'(15.9%), '업체간 과다경쟁'(9.7%), '해외수요 감소(2.8%) 순으로 응답했다.

원사업자와의 거래 상황 등을 통해 파악하는 동반성장 여건에 대해 '매우 나쁘거나 나빠졌다'는 응답이 38.5%에서 46.1%(60개사)로 7.6%포인트 증가해 협력업체들이 체감하는 동반성장 여건 역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자사제품의 단가에 대해 '부적정'(매우 부적정, 부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개사 81.5%로 전분기 응답(72.3%)보다 9.2%포인트 증가, 납품단가 적정성에 대한 인식 역시 최근 2년 내 가장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동반성장 여건의 개선을 위해 대기업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39.3%), '납품물량 보장'(34.2%), '중소기업을 협력파트너로 인식'(23.7%), '공정거래 준수'(1.9%), '경영지원 및 기타'(0.4%) 순으로 응답했다.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정부 대책으로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30.0%), '지역산업다변화 및 신규기업 유치'(23.6%),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강화'(19.2%), '상생협력 분

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14.8%), '대기업 해외이전 방지'(8.8%), '모니터링 및 실태 조사 강화'(3.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피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사업체 중 12개사(9.2%)가 '있다'고 답한 반면 118개사(90.8%)는 관련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지역 대기업들의 실적부진과 지속되는 대외 불확실성 고조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파업 리스크 등 연이은 악재로 협력업체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내수경기 진작,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 등 실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14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동림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삼성 스마트 쿡킹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빠르고 간편한 저렴한 한끼 식사를 주제로 요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가전으로 간편한 한 끼 만들기

삼성전자 광주서 '스마트 쿡킹 대회'...야시장 입점 기회

삼성전자는 14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동림다목적 체육관에서 지역 청년과 홀몸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삼성 가전제품을 활용한 '삼성 스마트 쿡킹 대회'를 열었다.

광주 '삼성 그린시티' 임직원들이 모은 후원금 6000만원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주고, 홀몸노인에게는 식생활 자립능력을 길러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1~3위 수상팀에게는 대한한식 협회가 주관하는 창업·조리 교육 참여

기회와 일자리·창업 지원 기관인 청년미래전략센터가 제공하는 광주 야시장 입점 기회도 주어진다.

이번 대회에는 청년 13개팀과 홀몸노인 13개팀이 참가해 삼성 냉장고와 직화오븐을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고 저렴한 한 끼 식사'를 주제로 경연을 펼쳤다.

수상팀에는 총상금 12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가전 제품이 부상러주지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1~3위 수상팀에게는 대한한식 협회가 주관하는 창업·조리 교육 참여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3D 생체의료 육성

지역 4개 대학병원과 협약...공동 기술·인력 양성 등

광주테크노파크와 전남대병원 등 지역 5개 기관이 3D융합 생체의료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는 지난 11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중회의실에서 전남대병원 윤택민 원장과 조선대병원 이상홍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3D의료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MOU'(사인)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테크노파크와 실질적인 수요자인 광주지역 4개 대학병원이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활용, 관련 신

기술의 공동연구, 기술이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의 주력산업인 생체의료산업은 지난 2002년 광주테크노파크에 타이타늄센터가 설립되면서 본격 육성됐다.

당시 2곳에 머물렀던 관련 기업이 지난해 211곳으로 늘었으며 매출액도 2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또 지난 달 22일에는 생체의료소재 차고형부품센터도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에서 문을 열었다.

배정찬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생체의료산업은 우리지역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광주테크노파크가 구축한 첨단 대형 장비들과 지역의 대학병원이 보유한 인력 및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며 "내년부턴 광주지역의 생체의료산업과 연계된

3D융합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매출 증대와 일자리창출이 이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최고금리 내년부터 24%

308만명 소급적용 안돼

내년부터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최고 24%로 낮아지지만 300만 명 이상은 여전히 이보다 높은 이자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이율 24% 이상 대출 채권은 약 15조9986억원 규모이고 채무자는 308만 2376명이다.

이는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저축은행 기준이다.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이 이상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실사...연말까지 정상화 방안 마련

채권단, 중국 공장 및 상황 연기·외부 전문가 참여 검토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 실사에 들어간다.

15일 채권단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이 16일부터 두 달 가량 금호타이어 실사 작업을 벌인다. 이번 실사에서 생산 원가 구조, 자금 수지, 미래 손익전망 등 금호타이어 경영·재무 현황 전반을 들여다본다.

채권단은 경영진이 후호적인 인사로 교체되는 데 기대를 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사를 할 때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깊은 부분까지 볼 수가 없다"며 "이번에는 금호타이어의 '민낯'을 제대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중국 공장 경쟁력도 제대로 따져볼 방침이다. 중국 공장은

금호타이어 생산능력 36%가량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있을 뿐 아니라 금호타이어의 '악한 고리'이기도 하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가 나오면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상화 방안에는 중국 공장 처리방향, 신규 유동성 지원, 인원 감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정상화 방안 마련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정상화 방안이 나올 때까지 중국 공장이 현지 외국계 은행에 진 빚 상환을 연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국 공장 현지 외국계 은행 차입금은 3160억원이다. 이 중 일부라도 상환을 요구받으면

유동성이 부족한 금호타이어로서는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8 9 18 21 28 40	2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557,579,393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9,676,853	50
3 5개 숫자일치	1,491,176	2,001
4 4개 숫자일치	50,000	102,081
5 3개 숫자일치	5,000	1,687,650

대한전문건설협 광주시회장에 이서길 씨

제9대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에 이서길(사진) (주)대성건설산업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시회 대표회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년도 제2회 임시총회'를 열고 광주광역시회 회장에 이서길 (주)대성건설산업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서길 당선인은 이날 당선인사에서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중책을 맡게되어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하고 "앞으로 3년동안 새로 구성되는 제9대 집행부와 함께 회원의 권

익보호와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인은 완도군 고금면에서 태어나 40여년간 건설업 외길을 걸어오며 연 매출 300억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17년동안 시회 임원과 2대에 걸쳐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선출에 이어 감사에 김제성 (합자)한남유리 대표를 선출하고 중앙회 대의원과 운영위원 등 임원진 구성은 이서길 당선인에게 위임키로 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